Market Analysis Report

2022년 10월 14일

코어닥스 리서치센터

Hot Issue	NFT 인증 제도의 필요성
가상자산 시장동향	[비트코인] •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및 실업률 등 경기지표 개선 저조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 지속 등에 따라 뚜렷한 반등 없이 상승/하락이 반복되는 횡보장세 관측
	[이더리움] • 9월 머지 업그레이드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 9월 이후에는 횡보장세 관측
	[폴리곤] • 최근 3개월 동안 상승 후 횡보 추세를 유지 중이며, 거래량이 적어 상승 강도는 강하지 않음.
코어닥스 소식	코어닥스-카르도,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 제휴 협약 체결

NFT 인증 제도의 필요성

신지수 연구원 (jsshin9170@coredax.com)

최근 가상자산 가격 급락과 NFT 시장 위축에도 NFT 사용자는 2021년 6월 50만명에서 2022년 6월 246만명으로 5배 가량 증가하였다. NFT가 처음 등장했을 때 NFT 미술작품이 수십만 달러에 낙찰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가격의 정당성, 지적재산권 분쟁,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활용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NFT는 단순히 디지털 미술작품 수집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PFP(Profile Picture), 입장권(Pass), 실물연계형 피지털(Physical+Digital), 권리, 인게임 NFT, 공동저작 리워드 등으로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NFT는 대체불가능, 상호운용성, 계약 자동 이행 등의 특징으로 유통, 제조, 서비스 산업에 전방위로 파고들고 있다. NFT는 메타버스 등과 같은 P2P 웹3 시대를 열어주는 핵심 열쇠이다. 따라서, NFT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NFT 시장의 문제점과 NFT 인증 제도의 필요성

□ 미술품 뿐만 아니라 전시 및 이벤트, 스포츠, 명품 등 다양한 형태의 NFT 등장

- NFT는 '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의 준말로, 블록체인에 저장된 디지털 등기 권리증이며,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원본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교환이 불가능함.
- 흔히 디지털 미술품이나 이미지로 대표되지만, 기념비적인 사건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도 블록체인 주소 삽입만 가능하다면 NFT 제작이 가능함.
- 누구나 손쉽게 본인만의 NFT를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거래가 자유롭다는 장점 때문에, 2021년 'NFT 붐'이 일게 됨.

□ 관련 규제 및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일어나는 소유권 및 저작권 문제로 인해 NFT를 검증하는 NFT 인증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

- NFT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관련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아무나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엄청난 수의 NFT가 무분별하게 발행되고 있음.
- 어느 정도의 검증 절차가 있어 원작자를 가리기 쉬운 특허와는 다르게, 대두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남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NFT로 생성하는 경우가 있어 저작권 관련 이슈가 존재함.
- NFT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야기: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복제나 전송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
- 저작권, 소유권 분쟁 등의 NFT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NFT의 실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NFT 인증 제도가 필요한 상황

NFT 인증 제도의 장점과 실물 경제에서의 NFT 활용 사례

□ NFT 인증 제도를 통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검증할 수 있으며, NFT 정보를 실생활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NFT는 현재 주로 게임이나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세계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다음 예시와 같이 투자 수단이나 진품 증명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실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예시 1)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 부동산 투자 수단 및 작품 홍보 수단으로 사용

❖ NFT 디지털 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에서는 MANA를 통해 NFT 형태의 디지털 토지 구매가 가능하며, 토지 소유자는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고 이를 다른 사용자들과 거래

❖ 디센트럴랜드 안에서는 패션쇼, 보물찾기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이벤트가 열림.

- ➢ 미술가들은 가상의 갤러리를 열어 미술 작품을 판매 및 전시하며 작품 홍보
- ➢ 음악가들은 디센트럴랜드 상에서 뮤직 페스티벌, 연주회 등을 통해 음악 홍보
- ➢ 메타버스 상에서 예술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역할 수행

예시 2) 유통업계에서 명품과 같은 실물 자산의 진품 증명수단으로 사용

❖ 유통업계는 온라인 명품 구매 시 정품을 인증하거나 의류를 가상 공간에서 소개하는 과정에 NFT를 접목

❖ 제품을 NFT로 만드는 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실패해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신세계 계열사인 SSG닷컴은 NFT 기술을 이용한 SSG개런티를 제공

- ➢ SSG닷컴에서 검증된 명품 구입 시 디지털 보증서가 휴대전화로 전송
- ➢ SSG개런티 도입 이후 SSG닷컴의 전체 명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 ➢ 이는 향후 리셀을 할 소비자를 고려하여 제공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인기를 끔.

❖ 이와 같이, 실물 자산과 연계되었을 때 진품 보증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음.

- NFT를 신뢰하지 못하고 위험한 자산이라고 인식하는 투자자/소비자들에게 인증 제도는 NFT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주요 소비 주체인 MZ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이며 유행에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한다면 실물 경제에서의 활용성이 높음.

NFT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 NFT 거래 시 투자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NFT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NFT 사기는 주로 복제품, 가품, 거래세탁, 증명불가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아직까지 국내 투자자 보호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들은 NFT 사기를 당할 경우 피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투자자들은 사기 예방을 위해 NFT 구매 시 기초적인 정보 확인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

□ 실물 자산 연계 NFT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신뢰검증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저작권 문제와 세금 징수 등의 이슈 관련 법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 한국조폐공사는 NFT의 신뢰성을 검증해 주는 서비스를 추진 중
  -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2022년 연말까지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정책 연구 용역'과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법률 컨설팅 용역'을 각각 진행한다고 밝힘.
  - ➢ 두 연구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NFT 신뢰검증 서비스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 메타버스 및 NFT 시장이 2025년까지 현재의 6배가 넘는 2,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검증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NFT 활용성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임.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 : BTC

□ 비트코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및 실업률 등 경기지표 개선 저조에 따른 금리인상 지속 등에 따라 뚜렷한 반등 없이 상승/하락이 반복되는 횡보장세 보여주고 있음.

1)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S&P500 지수와 강한 동조화 현상을 보임.

2) 9월 21일 미국 연준의 75bp 금리 인상 발표에 따라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은 2023년 ¼분기 또는 상반기까지 지속될 우려로 인해 당분간 박스권의 베어랠리 지속 가능성 높음.

3) 2,500만원~3,000만원 박스권에서 갇힌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횡보 추세와 함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승 요인>

1) 해시 리본 바이 시그널(Hash Ribbons Buy Signal) 매수 신호 및 기술적 지표 반등 전환

2) 고래 보유 USDT 유통량 비중이 증가: USDT 기반 구매력과 BTC 가격은 정비례하는 경향

<하락 요인>

1) S&P500 지수와 강한 동조화 현상 관측

2) 하락 삼각형 패턴이 완성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꼭짓점에 닿을 무렵 하향 이탈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 : ETH

□ 이더리움, 9월 머지 업그레이드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 9월 이후에는 횡보장세 관측

1) 9월 15일 머지 업그레이드가 있었으나, 9월 말까지 지속적인 시세 하락 관측

2) 대체적으로 지표들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큰 상승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3)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상승 요인>

1)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일일 평균 9만개의 신규 고유 주소 생성

2) 이더리움 디파이 점유율이 60%를 육박하며 디파이 산업에서는 지배적 위치 차지

3) 이더리움 유통 공급량 감소: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져 반등 기대

<하락 요인>

1) 8월 말 이후 샤프 비율이 1 이하로 급격히 하락: 위험 대비 수익률이 현저히 낮음.

2) 9월 21일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으로 인한 증시 악화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 : MATIC

□ 폴리곤, 최근 3개월 동안 상승 후 횡보 추세를 유지 중이며, 거래량이 적어 상승 강도는 강하지 않음.

1) 최근 3개월 차트를 보았을 때 MATIC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하락 후 횡보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상승 후 횡보 추세를 보이며 1,000원 가격대에서 견고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2) 장단기 이동평균선 기준선인 0선 부근에서 매수/매도가 반복되는 움직임과 함께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변동폭을 줄이면서 1,150원에 수렴하는 모습

3) 횡보 추세와 함께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 1,150원 수렴 후 상승 돌파시 시세 분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상승 요인>

1) zkEVM을 지원하는 폴리곤 헤르메즈 퍼블릭 테스트넷을 가동한다는 호재 발표

2) Wave Trend Strategy 상 Long Entry 신호가 발생했으며,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음.

3) ETH 머지를 통해 웹3 시장에 이용자 유입 증가 기대: 레이어 2의 확장성 업그레이드

<하락 요인>

1) 차트가 볼린저밴드의 상단 돌파 후 하락: 기준선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 있음.

2)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 어려움.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

□ **2022.10.7~10.13 주요 가상자산 지표**

가상자산	가격(₩)	7d%	7일 거래량(₩)	도미넌스(%)
Bitcoin (BTC)	27,258,024.44	▼6.38	364,232,254,197,831	40.01
Ethereum (ETH)	1,836,584.63	▼6.56	81,021,833,299,854	17.25
Tether (USDT)	1,426.77	▼0.33	822,659,458,021,188	7.47
USD Coin (USDC)	1,426.96	▼0.31	35,394,119,598,666	5.00
BNB (BNB)	385,428.97	▼9.16	5,414,380,086,771	4.75
XRP (XRP)	675.02	▼4.78	19,474,802,386,658	2.58
Binance USD (BUSD)	1,426.72	▼0.24	52,218,582,741,957	2.36
Cardano (ADA)	534.46	▼14.06	5,158,587,708,814	1.40
Solana (SOL)	44,002.93	▼10.50	6,216,778,726,587	1.20
Dogecoin (DOGE)	84.07	▼11.54	2,841,598,798,182	0.85

자료 : CoinMarketCap, 10월 13일 12시 기준

코어닥스 소식

1 코어닥스-카르도,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 제휴 협약 체결

- **9월 30일디지털 자산 전문 커스터디 기업 카르도와 사업 제휴 협약 체결**
- **협약에 따라 코어닥스는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수탁 ▲유의종목 지정 시 해당 자산에 대한 수탁을 권고할 수 있음**
-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증권형 토큰(ST·Security Token)을 포함하는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